

골목 곳곳에 활력 불어넣다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매출 향상·선도적 사업모델 제시하며 성료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한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 달 21일까지 약 두 달 간 진행된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가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선도적 사업모델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골목상권 드림축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라는 꿈(Dream)을 주제로 지역 상권에 소비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서신동 길공원 일원 등 9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상점가 9개소 등 총 18곳에서 진행됐다.

시가 드림축제에 참여한 골목상권·전통시장 상인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축제 총감독·컨설턴트·골목협의체 대표 등이 함께 축제의 성과 및 발전방안을 논의한 자체평가보고회를 분석한 결과 이 축제가 주민주도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설문조사 결과 골목상권 상인들은 전년 대비 고객 수와 매출이 각각 38%와 39%가 증가했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전년 대비 고객 수와 매출이 각각 33%씩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진행된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소비행사는 상권 특색에 맞는 자체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한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품·할인행사와 플리마켓, 먹거리 장터, 문화예술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 드림축제는 외부에서 온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단순한 플리마켓이 아닌, 동네 식당에서 자체 음식이나 음료를 밑반찬으로 판매한 할인행사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한식 전문 신호섭 셰프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전주지역 2개 음식점에 특별 레시피와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전주 드림 레시피’ 행사도 함께 진행돼 지역 상인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주고 자생력도 키워줬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축제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민연금공단

(NPS) 등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상가 사용쿠폰 및 경품을 지원하고, 이마트와 서신동상가번영회 33개 회원상가가 이용고객에게 이마트 할인쿠폰 30~40% 증정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경제의 주체인 상인과 공공기관, 대형마트가 협업하기도 했다.

김중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가 급작스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준비기간도 부족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상인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주민주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동 단위 지역 스토리화 및 상가별 특장점 개발을 통해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위기청소년 지원 기관별 자원 공유 방안 모색

전주시청소년안전망 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온라인 개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17일 전주시청소년안전망 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전주시청소년안전망 중점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조사 및 발굴(2022년 중점사업계획 공유의 건) △2022년 공동사업 추진의 건 등이 논의됐다.

19개 기관 참석자들은 올해로 10회째 진행될 공동사업인 연합아동리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청소년안전망 활성화대회를 개최해 전주시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및 센터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위기청소년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느 기관,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88청소년지원단 현황 리플렛을 제작하고 공유함으로써 청소년안전망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소년특별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특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위기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다른 제도 및 배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해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 공고 기간은 2월 15일부터 28일까지로 관할 동사무소 및 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월 23일부터 28일까지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야호 맘껏 숲놀이터 놀이 프로그램 ‘풍성’

전주시, 덕진공원 내 위치 아동친화공간으로 올해 66개 운영

전주덕진공원 안에 위치한 ‘야호 맘껏 숲놀이터’가 아이들이 자유롭게 주도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동친화 공간으로 제공된다.

시는 야호 맘껏 숲놀이터가 아동의 놀 권리를 지역 사회에 접목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이곳에서 총 66가지의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가장 첫해인 지난해 36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야호 맘껏 숲놀이터에서는 △꿈꾸는 트리하우스 △함께하는 목공놀이 △신체 발달놀이 △오색찬란 신기한 비눗방울 △색깔놀이 △분필놀이 △내맘대로 목공놀이 △얼기설기 숲 밧줄놀이 △새싹이 움트는 봄의 소리 △시원하게 즐기는 여름 △다람쥐가 심은 나무이야기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피자락 주말 △추위야! 물뿜기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야호놀이전주 누리



전주시, 덕진공원 내 위치 아동친화공간으로 올해 66개 운영

집(www.jonju.go.kr/yaho)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8세 이하 모든 아동이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각 놀이 프로그램별로 현장에서 선착순 신청하거나, 전화(063-275-2356)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놀이별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발열체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곳을 찾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과 보호자의 휴식공간인 맘껏 하우스에 다양한 그림책을 주제별로 비치해 책과 놀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생태 숲놀이터 도서관은 놀이 인식개

선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자 다양한 놀이와 학습, 체험 휴식이 가능한 덕진공원 야호 맘껏 숲놀이터는 크게 △맘껏숲 △맘껏하우스 △생태 숲놀이터 도서관의 3개 구역으로 돼 있다.

맘껏숲은 아동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지형과 자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야외 놀이공간이며, 맘껏하우스는 날씨와 상관없이 아동이 놀 수 있고 보호자가 안전하게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이다. 생태 숲놀이터 도서관의 경우 아동과 부모에게 생태·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특화도서 가 비치돼 놀이문화 확산의 거점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장은 “전주시의 모든 아이들이 야호 맘껏 숲놀이터에서 맘껏 뛰놀고 상상력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동이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놀이를 즐기고, 시민들이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 완산도서관, 특별한 북큐레이션 운영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각의 주제별로 도서를 전시하는 ‘책과 사람을 잇는 특별한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 21일부터 오는 3월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북큐레이션은 ‘완산도서관 보존서고 탈출기’를 주제로 완산도서관 보존서고에 있는 책 가운데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 30권이 전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목 긴 사나이(박재동, 1996년) △제12회 소설시 문학상 수상 작품집(1997년) △한국인 트렌드(김경훈, 1995년) △한국현대미술대표작가 100인선집(1976년) △아이들방 인테리어(김선희, 1996년) △슬램덩크(다케히로 이노우에, 1996년) △바람의 나라(김진, 1998년) 등이 전시된다. 특히 전시되는 도서 중 제12회 소설시 문학상 수상작품집(1997)의 경우 전

북지역 대표작가인 김용택 시인이 김남조·이여령 등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한 작품 ‘사람들은 왜 모를까’가 실려 있고, 한국현대미술대표작가100인선집의 경우 지난 1989년 기전여자전문대학장이 기증한 초판 책이어서 눈여겨 볼만하다.

한편 북큐레이션은 △그림책을 듣는 시간(4월) △글쓰기 어떻게 시작할까?(6월) △투립출판 들여다보기(8월) △북박스오피스(10월) △고문서 희귀자료 전시(12월) 등 다양한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전주시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는 노후 경유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5억 9500만 원을 투입해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통학차량으로 사용되는 9인~15인승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한 뒤 LPG 신차로 교체하면 대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대상 차량은 약 85대다.

시는 작년과 동일하게 별도의 특례조항을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차여부와 관계없이 LPG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장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3월 말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 등의 정보를 포함해 공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4층)로 방문하거나 팩스(063-279-4509)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전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이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